

2010 해외 단기유학 후기

University of Minnesota

2011. 6. 28

20080444

물리학과

정하은

Contents

■ 후기를 시작하며

■ 출국 전

- University of Minnesota
- 단기유학 신청 및 입학허가서 받기
- 항공권
- 비자
- 보험
- 짐 챙기기
- 수강신청계획 세우기

■ 도착 직후~개강, 기본 정보

- 학교 가는 법
- 임시기숙사
- 집구하기
- Document Check 및 Hold, Health Check, OT, U Card
- 수강신청
- 휴대폰
- 은행
- 환전
- 등록금
- Meal Plan
- 대중교통

■ 가을학기

■ 봄학기

■ 방학 및 여행

■ 기타 정보

- 마켓, 생활용품 구입
- 한인마트
- Meal Plan 관련
- 문화생활
- 쇼핑
- Technology Fee

■ 예산

■ 기타 하고 싶은 말

- 유학에 관하여
- 단기유학은 미리미리 준비

■ 후기를 마치며

후기를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학과 08학번 정하은입니다. 저는 2010년 가을학기부터 2010년 봄학기까지 약 9개월동안 미국 중북부의 University of Minnesota로 단기유학을 다녀왔습니다. 단기유학을 준비하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것이 정말 잊그제 같은데, 어느새 단기유학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여 후기를 쓰고 있네요. 출국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걸 싶었던 내용들을 모두 적다 보니 후기가 무척 길어졌는데요, 부족한 부분이 많은 후기일지라도 앞으로 단기유학을 가실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작성하였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내용에 관한 질문이나 기타 궁금하신 점은 che727@postech.ac.kr 로 연락주세요!

이 후기는 아래의 두 링크를 통해서 PDF 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pokepiw.ivyro.net/2010_UofM_Haeun.pdf

http://home.postech.ac.kr/~che727/2010_UofM_Haeun.pdf

1. 출국 전

A. University of Minnesota

- i. University of Minnesota는 미국 북중부에 위치한 Minnesota주의 주립대로써, 대학 구성원 숫자가 미국 내 4위 안에 들며 메인 캠퍼스 또한 세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규모가 큰 종합대학입니다. 위도가 높은 지방에 위치한 대학이라 겨울에는 무척 춥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눈이나 추위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있고, 봄이나 가을, 특히 여름 날씨는 매우 좋습니다. 주도인 Minneapolis 안에 위치하고 있고, Downtown도 가까워서(버스로 10분) 생활에 있어서는 큰 불편함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유학 측면에서는 2011년 기준으로 봄학기 및 가을학기 유학이 모두 가능하고, 기간 또한 1학기/2학기 모두 가능하며 학과 제한도 없습니다. 또한 갈 수 있는 학생 숫자 또한 매우 넉넉하여, 단기유학 지원 기준만 만족하면 지원이 가능한, 선택의 폭이 넓은 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 단기유학 신청 및 입학허가서 받기

- i. 혹시 아직 단기유학을 지원하지 않으신 분께서 이 글을 보신다면, 토플 점수를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봄학기 단기유학을 준비하신다면 가기 전 해의 7월(ex-2012년 1학기 단기유학: 2011년 7월), 가을학기 단기유학을 준비하신다면 가기 전 해의 12월(ex-2013년 2학기 단기유학: 2012년 12월)까지는 토플 시험을 치셔야 단기유학 신청 기간 이전에 안정적으로 원본성적표가 도착할 것입니다. 원본성적표가 없으면 토플 120점이라 하더라도 단기유학에 지원하실 수 없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중 하나를 잡으셔서 한 번의 방학 안에 끝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토플 점수를 따셨다면 그 다음은 GPA인데요, 제가 지원할 때의 경우엔 단기유학 지원 기준인 3.3만 넘으신다면 University of Minnesota는 무난히 합격하였었고, 앞으로도 최저기준만 넘는다면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ii. 학교 내의 단기유학에 합격하셨다면 이제 그 다음은 University of Minnesota로 지원서를 쓰실 차례입니다. 지원서는 그냥 쓰시면 되고, 자기소개서 또한 단기유학 프로그램 지원시 사용하셨던 영문 자기소개서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며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국제협력팀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셔서 쓰시면 되는데, 문제는 기숙사 신청서입니다. 기숙사에 사시기를 원할 경우에는 기숙사 신청서를 잘 쓰셔야 하는데요, 나중에 온라인으로 수정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처음부터 잘 쓰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숙사 신청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iii. UofM으로 지원서를 쓰시고, 기다리시다 보면 5월 초(저의 경우에는 그랬습니다.)에 UofM으로부터 Email들이 올 것입니다.(DS-2010과 함께 오는 우편메일과는 별개입니다. 우편 메일은 6월 중순~말에 왔습니다.) 이때 오는 메일들은 UofM의 인터넷 계정 ID와 Temporary password를 담고 있는데요, 메일을 받으신 후에는 메일에 나와있는 대로 로그인 하셔서 비밀번호를 재설정 하시고, UofM 계정에 등록된 정보가 맞게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학을 떠나기 전까지는 POSTECH 메일로도 주요 안

내 메일이 날아오지만, 가끔씩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UofM계정을 받으신 이후에는 가끔씩 UofM 메일 또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UofM에서 온 메일이 SPAM 메일함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 지원 후에는 SPAM 메일 또한 제목 정도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 항공권

- i. 항공권 역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가장 편한 방법은 대아여행사로 가시는 겁니다. 학교와 계약이 되어있는 Delta 항공으로 하실 경우 보통 일본을 경유하여 Minneapolis로 가시게 됩니다. 대아여행사에서 하신다면 편하시긴 하겠지만 값은 그냥 그럴 것이고요,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개인적으로 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학생할인을 받으려면 비자를 받은 상황이어야 해서 빨라야 7월 초에 예약이 가능한데, 가을학기 유학의 경우 8월에 출발하게 되므로 성수기라 학생할인 티켓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저는 4월에 대아여행사를 통해서 예약을 했고, 유효기간 1년짜리 티켓으로 하여 출국 날짜는 8월 18일로 잡았었습니다. 귀국날짜는 비행기 예약이 1년후까지만 가능했던 관계로 3월로 잡았었으나, 2월에 대아여행사로 연락하여 수수료 없이 5월로 날짜를 옮겼었습니다. 돌이켜보면 8월 18일은 다소 이른 출국이었는데요, 여행을 가지 않으실 거라면 대략 20일~25일 중 수요일 정도에 맞추어 출국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학 전 여행을 계획하실 경우, 미국 입국은 비자에 표시된 날짜가 아닌, DS2019 서류에 나온 날짜보다 1개월 전부터 입국이 가능하므로 여행 계획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 비자

- i. UofM 계정에 대한 email이 온 후 기다리다 보면 6월 말에 비자신청 관련 서류가 담겨있는 우편물이 오는데요, 비자 신청은 여행사에 가서서 대행으로 하실 경우 돈이 좀 더 들기는 하지만 편하게 하실 수 있고, 따로 정보를 알아보아야 하지만 혼자 준비하실 경우에는 번거롭지만 돈을 절약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 보험

- i. UofM의 경우에는 학기중에 의무적으로 학교 보험을 들도록 되어있는데요, <http://www.shb.umn.edu/twincities/students/student-health-benefit-plan.htm>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거나, 아니면 UofM 사이트에서 Health Insurance 로 검색하신 후 찾아보시면 Coverage Dates 라고 해서 학교 보험으로 커버되는 기간이 나와있습니다. 보험료는 비싼 편이지만 대안이 없으므로 내실 수 밖에 없고요, 이 보험 외에 추가적으로, 저 출국 날짜부터 Coverage Dates 가 시작하는 날 사이의 기간에는 별도로 여행자보험을 가입하신 후 국제협력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행자보험은 그냥 평범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편하게 하실 거면 대아여행사 가서서 하시면 됩니다.

F. 짐 챙기기

- i. 미국에 짐을 보내는 방법에는 크게 우체국EMS와 우체국 선편, 그리고 일반 업체 선편 (http://www.cyhds.com/service/lcl_dreambag03.jsp)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가격은 우체국EMS>일반업체선편>우체국선편 이고요, 다만 우체국 선편은 보낼 때 보험을 꼭 꼭꼭 드시기 바랍니다. 주로 겨울에 입을 두꺼운 옷이나 책을 미리 부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ii.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있는 짐은 일반적으로 캐리어 2개, 각각 23kg까지 무료일겁니다. 23kg가 초과할 경우에는 총 무게가 아니라 초과하는 캐리어 개수만큼 초과 요금이 붙고요, 초과요금이 붙은 캐리어는 무게 제한이 32kg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만약 미국 국내선 비행기를 국제선과 '별개로' 구입하셨을 경우에는 미국 국내선에서 check 짐을 부칠 때 초과요금을 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 iii. 짐을 챙기실 때 한국음식(라면, 참치캔, 3분카레 등)은 전혀 챙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버스타고 30분 가면 한인마트가 있고, 필요한 한국음식이 대부분 있으며,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므로(물론 한국보다는 비쌉니다.) 무게가 남으시는게 아니라면 한국 음식은 챙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수저 정도는 챙겨가시는걸 추천합니다.
- iv. 그 밖에는 개인상비약 정도 필요하실 거고요, 교과서 이외의 책을 담으실 때에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신 후 챙기시기 바랍니다.

G. 수강신청계획 세우기

- i. <http://onestop.umn.edu/> 에서 오른쪽 Quick Links 중 Class Schedule 을 누르시면 과목을 검색하실 수 있으며, 더불어 과목에 대한 짚막한 설명 및 교과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대략적인 수강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참고로 Syllabus 까지 찾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며, 과목에 대한 설명만으로 전공과목(특히 필수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부를 확인하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 항목에 한국에서 International Edition으로 구할 수 있는 책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필히 한국에서 구입해서 가시기 바랍니다.(미국은 교과서가 정말 비쌉니다.)

2. 도착 직후~개강, 기본 정보

A. 학교 가는 법

- i. 학교 가는 법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택시를 타는 것이고, 두 번째는 Light Rail과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며 세 번째는 한인커뮤니티를 통해서 라이드를 받는 것이고 네 번째는 학교의 공학 픽업 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 ii. 첫 번째 방법은 공항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비용은 다소 비싸지만(20불 이상) 짐도 무난히 실을 수 있고, 아마도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임시기숙사인 Centennial Hall로 갈 경우에는 University of Minnesota, East Bank, moos tower로 가 달라고 말하면 적어도 East bank 까지는 갈 것이고 그 다음에는 지도를 이용해서 임시기숙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택시 기사에게 지도를 보여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짐이 많을 경우 이용하기 힘든 방법이나, 불가능한 방법은 아닙니다. 택시와는 달리 3달러도 되지 않는 돈으로 학교로 오실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내린 후 Light Rail이라는 지상철을 타고 Metrodome 역에 내리신 후 바로 앞 버스정류장에서 Light Rail이 오던 방향으로 가는 버스 중 16번이나 50번 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East Bank에서 내리시면 됩니다만..... 구글맵이나 구글 스트리트 뷰로 철저히 준비하시고, <http://www.metrotransit.org> 에서 버스 노선을 참고하셔야 할 겁니다. 보통 도착하시면 일단 임시기숙사인 Centennial Hall로 가시게 되므로 버스를 타고 다리를 건너신 후 두 번째 정류장-Washington Ave 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인 한인커뮤니티 라이드는, 주로 미네소타 한인 교회의 게시판에 라이드를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미국 도착 최소 일주일 이전에 미리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학교 벤 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8월 초에 학교에서 메일이 왔는데요, 인터넷셔널 학생들을 위해서 공항에서 학교까지 무료로 픽업해주는 벤이 있다는 내용이 써있어서 그 벤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벤의 경우에는 밤시간에 도착할 경우 이용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이 벤이 매년 8월마다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UofM의 ISSS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가 제공됩니다.(<http://www.iss.umn.edu/>)
더불어 주의사항으로써, 2011년 올해 UofM으로 가시는 분의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외의 방법을 사용하시길 강력하게 권합니다. 현재 UofM은 Minneapolis 에서 St. Paul을 연결하는 Light Rail 공사로 인해 원래대로라면 버스가 지나가야 할 Washington Ave가 막혀있는
상황이고,(<http://www.metrocouncil.org/transportation/ccorridor/centralcorridor.asp>) 따라서 위에 언급한 대로 16번이나 50번을 타더라도 Washington Ave에 내리실 수 없으며, 우회로를 통해서 임시기숙사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곳에 내리게 됩니다.(아마 가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겁니다...) 따라서 대중교통은 절대 비추천이며, 대중교통 이외의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B. 임시기숙사

- i. 임시기숙사는 아마도 Centennial Hall 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8월중순에서 개강 전주까지 이용이 가능하고요, 다른 기숙사에 배정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일단 처음에는 임시기숙사에 머물다가 학기가 시작할 때쯤 학기 중에 쓸 기숙사로 이사하게 됩니다. 다만 학기 중에 쓸 기숙사로 Centennial Hall을 배정받은 경우에는 따로 이사할 필요 없이 학기 중에 쓸 방으로 임시기숙사를 배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임시기숙사 신청은 UofM에서 오는 안내문(우편 혹은 Email)을 잘 읽어보시다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시기숙사를 사용하는 기간에는 1박당 21달러(변동가능)의 이용료가 부과되며, 자동으로 Student Account에 부과되니 나중에 등록등 내실 때 같이 내시면 됩니다. 동시에 임시기숙사를 사용하시는 기간 동안 단기 Meal Plan도 이용이 가능한데요, 이 부분은 Meal Plan 부분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ii. 저는 학기 중 기숙사로 Centennial Hall로 배정을 받아 임시기숙사 기간부터 5월까지 계속 이용하였는데요, 임시기숙사 기간을 돌아켜보면 상당히 남는 시간이 많은 기간이었습니다. 저처럼 다소 일찍 도착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 뭔가 할 일을 준비해 놓으시거나, 아니면 아직은 방학인 이 기간을 이용하여 학교 주변과 Minneapolis를 돌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3~4일 정도의 일정으로 시카고를 다녀오셔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임시기숙사는 매우 춥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인즉슨 에어컨이 너무 빵빵해서 인데요, 자신이 사는 방의 에어컨을 꺼놓을지라도 건물 전체가 냉방 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냥 방에 있으면 춥고, 그렇다고 창문을 열어버리면 밖에서 들어오는 습기 때문에 수증기가 응결되어서 천장에 맺히는 현상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침대에 누워있을 경우 천장에서 몸으로 물방울이 툭툭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짐을 가져가실 때 적절한 옷을 준비해 가시면 반팔만 있는 것 보다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어차피 계속 Centennial Hall에 살 예정이기도 했고, 난방은 10월이 되어 시작된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을 통해 전기담요를 구입하였습니다. 30~40불 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하며, 전기담요 덕분에 난방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매우 따뜻한 이불 속에서 수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C. 집구하기

- i. 다른 후기에도 나와있듯이, 집은 크게 학교기숙사와 학교아파트, 그리고 외부 Housing 이렇게 3종류가 있습니다.
- ii. 우선 학교기숙사와 학교아파트의 경우에는 맨 처음 학교에 지원서를 낼 때 지원하게 되는데요, 지원할 때 기숙사 종류와 1인실 2인실 여부 등등에 우선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이공계열 수업은 거의 다 East Bank에서 이루어지니 학교 지도를 참고하시어 East Bank 쪽으로 잡으시는 것이 좋을 것이고, 아파트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때 신청하게 되면 5월에 학교계정이 발급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UofM의 Housing & Residential Life 부서 홈페이지에서 기숙사 지원서 작성시 작성했던 대로 신청 내역이 올라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점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건데요, 그 신청내역 확인 홈페이지에서 \$25의 Application Fee를 지불하였을 때 비로소 기숙사 신청이 Confirm 되고, Housing Application이 접수되었다는 메일이 날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Fee를 빨리 내서 일찍 신청이 완료될수록 우선순위에서 앞서기

때문입니다. (Thank you for submitting your housing application-contract for the 2010-11 new residents application period. Your application was initiated on 5/11/2010 and **was completed when your \$25 non-refundable Housing Application Fee was received on 5/15/2010.** Your Application Complete date is very important when we make housing assignments. **An earlier date increases your chances of being assigned to a building that is higher on your preferences list** (based on eligibility). Housing freshmen guarantee and eligibility information can be found online at www.housing.umn.edu/applying.) 따라서 수업 듣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머물기를 원하신다면 Application Fee를 일찍 지불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후에 기숙사 배정 결과는 한참 후에 날아오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7월말에 UofM 메일을 통해서만 날아왔습니다.(즉, POSTECH 메일로는 배정결과가 오지 않았습니니다.) 따라서 기숙사를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 이후에 주기적으로 UofM 메일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숙사와 아파트의 차이점을 언급하자면 기숙사는 보통 1인실이나 2인실을 사용하게 되고, Meal Plan을 의무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공용 샤워실과 화장실을 쓰게 됩니다. Housing 가격만 따지면 아파트보다 저렴하나, Meal Plan이 결코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총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아파트는 조리 가능한 Kitchen이 무조건 달려있으며, 따라서 Meal Plan이 의무가 아닙니다. 또한 방에 달려있는 화장실을 사용하게 되며, 1인실부터 4인실까지 있고 그 종류 또한 다양하나 기본적인 Housing 가격이 저렴하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기숙사 만큼 가격이 저렴한 방도 있습니다.(Ex 4인용 아파트에 2인실 방이 2개 있는 경우) 더불어 아파트로 배정받으셨을 경우에는 contact 기간이 기숙사보다 더 길어서 임시기숙사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아파트로 가시게 됩니다. 또한 1년 단기유학의 경우에는 겨울 방학 때도 추가적인 절차 없이 방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숙사의 경우에는 겨울 방학 때 기숙사 전체가 closing 하는 기숙사가 있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1박당 추가 요금을 낼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housing.umn.edu> 에 가시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들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2009년 후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기숙사는 신청하더라도 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이 많은데요, 이것은 해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 가을학기에 UofM으로 단기유학을 온 포스테키안은 처음부터 외부 Housing을 준비하던 2명을 제외하고 남은 9명 모두 학교 소속 기숙사 및 아파트에 배정을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숙사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일단 최대한 빠르게 신청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iii. 외부 Housing: 외부 Housing은 제가 이용하지 않은 관계로 자세한 정보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종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편이고 구하는 방법 또한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방의 종류에 따른 한달 렌트비는 \$400~\$700 정도이며, 한 학기 단기유학의 경우에는 짧은 기간 때문에 한인커뮤니티를 통해 다른 한국사람의 룸메이트로 들어가는 방법이 아닌 경우 계약을 하기가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학교 근처의 인기 Housing 으로는 West Bank의 Seven Corners Apartment, East Bank의 Terry House, argyle, Stadium Village, University Commons, Dinky town의 Chateau House 등이 있습니다. 한인커뮤니티를 통한 Housing은 주로 <http://mkgssa.org> 에서 자주 이루어 집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학교 기숙사나 아파트보다 저렴하지만, 단점으로

는 학교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발품을 조금 팔아야 괜찮은 곳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정도가 되겠습니다. 외부 Housing을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스스로 음식을 해먹거나 사먹어야 하지만, 학교에서 제공하는 Meal Plan에 가입하여 기숙사에서 밥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 iv. 제가 이용한 Centennial Hall은 Super Block 이라고 해서 학부생 기숙사 4개가 한군데에 모여있는 지역에 위치한 기숙사였는데, 주로 수업을 들었던 물리과 건물까지는 빨리 걸으면 10분 이내, 천천히 걸어도 15분이면 가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대략적인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5층의 1인실에서 살았었는데, 1인실 이어서 좋았던 점은 룸메이트와의 conflict 없이 혼자 지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만, 좋은 룸메이트를 만났다면 룸메이트가 있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기숙사 1층에 공용 kitchen이 있어서 가끔 필요할 때 이용하였으며, 층 로비나 지하의 Study Area에서 공부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Music room이라고 Front에서 열쇠를 빌리면 이용할 수 있는 악기 연습실도 있었습니다.(연습실에는 기본적으로 피아노가 있습니다.) Centennial Hall의 장점이라면 아침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는 Dining Hall이 있다는 것인데, 다른 기숙사와는 달리 Centennial의 식당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자정까지 Night Snack을 제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거의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하에는 C3 Market이라고 해서 작은 편의점이 있어서 급할 때 필요한 생활용품이나 과자, 음료수 등을 구입하기에도 좋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기숙사가 겨울방학에는 아예 문을 닫는 반면 Centennial Hall은 겨울방학 때도 문을 열었는데, 저는 겨울 방학 때 Full time 여행을 간 터라 이용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1박당 정해진 요금을 내고 겨울방학 때도 자신이 살던 방에서 살 수 있습니다. 겨울방학 때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짐들은 방에 그대로 놔둘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 Document check 및 hold, health check, OT, U Card

- i. 학교에 도착하면 개강하시기 전 까지 Document Check, Health Check, OT 참석 등을 하셔야 이후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ISSS에 가서서 Document Check를 하고 Orientation 참석 날짜를 정하시는 건데, 안내 메일에 다 자세히 안내가 되어있으니 잘 읽어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Health Check의 경우에도 안내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걱정했던 부분이 Immunization Report 작성이었는데, 이게 접종날짜를 정확히 몰라서 그렇지 일반적으로 어렸을 때 다 접종하는 그런 것들이니, 인터넷 등을 참고하셔서 적절히 작성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TB Test의 경우에는 IR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받게 되어있고, 문제가 있을 경우 이곳 병원에서 접종 받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Document Check와 Health Check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들이 Hold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인데, 개강 무렵까지 Hold가 정상적으로 다 풀려있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꼭 정상적으로 Document Check의 경우에는 OT참석까지, Health Check의 경우에는 TB test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 후기를 보면 2009년까지는 Hold가 완전히 풀려야 수강신청 및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2010년에는 OT참가 전이라도 Document Check를 받고, Health Check의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check 받을 날짜를 예약하고 나면 시스템 상으로는 Hold가 있다고 뜨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임시로 Hold를 풀어줬기 때문에 Hold가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도 인터넷 사용 및 수강신청이 가능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i. Ucard는 학교 학생증을 말하는데요, Document check나 Health check와 관계 없이 Coffman Union Building Ground level 에 위치한 Ucard Center에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사실 Document Check를 하고 나면 Ucard 만들러 가라고 안내해 줍니다.) 은행 계좌가 없으실 때는 이 Ucard Center에서 동시에 TCF Bank 계좌 또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Ucard는 Minnesota 주 내에서는 여권이 필요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증으로 사용되고, 학교 안에서 도서관 출입이나 기숙사 출입시 사용되므로 가능한 빨리 만드시고, 또 항상 휴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 수강신청

- i. 수강신청은 앞서 언급한대로 Hold가 완전히 풀리지 않았더라도 임시로 풀리고 나면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졸업을 생각하셔서 학교에서 권장하는 대로 졸업을 위해서는 전공과목(타과 전공포함)을 많이 들으시고, 교양과목은 적게 들으시는걸 추천합니다. 정원이 꽉 찬 과목의 경우에는 따로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셔서 Permission Number를 알아보시고(UofM Mail 사용 필수), 만에 하나 답장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포기하지 마시고 첫 수업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UofM에는 첫 수업 필수 참석 조건이 있어서(http://onestop.umn.edu/registration/prepare/first_day.html) 첫 수업에 참석한다면 출석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자리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물론 모든 교수님들이 첫 수업때 출석을 철저히 체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OT때 안내를 받으시겠지만, J-1 VISA를 가진 학생의 경우 13학점 이상 수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VISA가 취소되니(즉,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 휴대폰

- i. 혹시라도 휴대폰 없이 지낼 계획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물론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의미에서 꼭 한대 장만하시는걸 추천합니다. 여러 휴대폰 회사가 있지만(AT&T, Verizon, Sprint, T mobile 등), 제가 이용했었으며 또한 추천하고 싶은 회사는 Virgin Mobile 입니다. 이 회사는 Sprint의 통신망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재판매(MVNO) 업체인데요, 다른 Major 업체들과 비교해서 사용료가 무척 저렴하고, 동시에 선불이용만이 가능한, Contract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미국에 머물다 가는 단기유학생들에게는 최고의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처의 BestBuy 나 Target에 가서 그냥 물건 사듯이 핸드폰 기계를 구입한 후 그 자리에서 개통하시고 매달 정해진 Plan만큼 결제 후 사용하시면 되며, 핸드폰 종류는 많지 않지만 기본기능만 있는 핸드폰부터 요즘에는 비교적 싼 가격에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스마트폰도 판매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 회사는 모든 요금제에서 문자와 데이터가 무제한입니다...) 물론 제가 이 회사에서 돈을 받고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가격 및 계약조건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보면 이 회사만큼 적절한 회사가 없으니 참고하시고 잘 비교해 보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ii. 더불어 미국은 전혀 활활활 하지 않은, 휴대폰 음영 지역이 많은 나라입니다. 지하철

에서도 팡팡 터지는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학교 안이라고 할지라도 건물 안에 들어가면 전파 신호가 급격히 약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통신사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또한 미국은 전화를 거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통화요금을 지불합니다. 즉 Plan에서 남은 통화시간이 거는 쪽과 받는 쪽 모두 감소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ii. 동시에 국제전화에 대해서도 말씀 드리자면, 일단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화할 때는 마음 편하게 Skype를 사용하시는 것이 제일 간단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Skype끼리 공짜인 것은 다들 아실 거고, 한국 핸드폰이나 일반전화로 거실 경우에는 스카이프 Credit을 구입하셔서 사용한 분수만큼 요금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 달에 한국으로 전화하는 분 수가 2시간 30분 이상이라면 credit 보다는 월정액 Plan을 사용하시는 것이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전화를 받는 방법으로는 자신의 미국 핸드폰 번호로 한국에서 국제전화를 거는 방법이 있겠지만, Skype를 이용하심과 동시에 한국 핸드폰을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한국 핸드폰으로 온 전화도 미국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스카이프 인터넷 번호를 구입하신 후, 한국 핸드폰은 스카이프 인터넷 번호로 착신전환을, 그리고 스카이프에서는 인터넷 번호로 온 전화를 미국 핸드폰으로 착신전환 시키는 것인데요, 이 경우 한국 핸드폰->스카이프 인터넷 번호로의 착신전환에는 딱히 시간당 요금이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스카이프 인터넷 번호->미국 핸드폰의 경우에는 스카이프에 미국 핸드폰에 전화 할때와 같은 요율만큼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 요금이 1분에 20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그냥 skype credit만 어느정도 충전해 놓으시면 굳이 스카이프에서 월 드무제한 요금제를 따로 구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G. 은행

- i. 저는 그냥 학교 공식 은행인 TCF Bank를 이용하였습니다. 학교 곳곳에 ATM이 존재하고, 학생으로써 계좌를 열 경우 Minimum Balance 조건이 없기 때문에 Balance 유지 걱정 없이 TCF체크카드를 쓰실 수 있습니다.(계좌를 열면 check카드를 만들어 줍니다. 동시에 학교 학생증과도 연결되어 학교 학생증을 통해 ATM에서 돈을 뽑을 수 있습니다.)

H. 환전

- i. 등록금 수준의 대량 환전을 할 경우에는 은행에서 외화공금서비스를 통해 한 건당 약 25000원 정도의 고정수수료를 내고 환전하는 것이 유리하나, 100달러 단위의 소량 환전시에는 국내의 해외 ATM 이용가능 카드를 이용해서 출금 금액에 비례하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환전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Ex. 우리V체크카드 이용, 사전 신청 필요, 한도가 있으므로 주의) 또한 알려진 바로는 City 은행 카드를 이용할 경우 해외 ATM에서 돈을 인출할때의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등록금

- i. 미국은 등록금을 내는 시기가 늦습니다. 가을학기의 경우에는 10월 중순이 등록금 Payment due 입니다. Academic Calendar에서 등록금 due를 확인하시고 날짜에 맞추

어 미리 환전하여 미국 계좌에 넣어둔 돈을 사용, 인터넷을 통해 electrical check로 지불하시면 됩니다.(카드로도 가능하지만 수수료가 %로 붙습니다..) 참고로, 물론 미래는 예측 불가능 합니다만, 적당히 타이밍을 맞춰서 환율이 낮을 때 환전을 하면 환전 단위가 10000달러 이상인 관계로 환율 10원당 10만원씩 돈을 아끼는 수가 있습니다.(물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One Stop 홈페이지의 Student Account에 나오는 금액만큼 지불하시면 되는데, 미국 행정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 관계로 보통 9월 중순까지는 Account에 뭔가 계속 추가되거나 Waiver가 생길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의 경우에는, 수업료 자체는 최초에 \$7047 이 부과되었다가 후에 \$2150 가 감면되어서(교환학생) \$4900 정도 되었으나, 수업료 이외에도 각종 Fee나 보험료 등이 더 추가되어서 최종적으로는 기숙사비와 Meal Plan 비를 제외하고 약 \$7300 정도 지불하였습니다.(기숙사비와 Meal Plan 포함해서는 \$11,300 정도) 듣는 과목에 따라서 추가 재료비나 강사료가 붙으므로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J. Meal Plan

- i. 문제의 Meal Plan 입니다. 일반적으로 Meal Plan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는데, 대표적인 원인은 맛과 가격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Meal Plan의 기본적인 개념은, 학기 초에 미리 일주일당 몇 끼, 혹은 한 학기에 몇 개 꼴로 미리 일종의 식권을 구입하여 학기 중에 사용하는 것인데요, Plan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끼에 9~10달러 꼴로써 직접 만들어 먹는 것 보다는 훨씬 비싸고, 밖에서 사먹는 것과는 비슷하지만 맛이 떨어지는 관계로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못 먹을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만, 뷔페식예다가 메뉴가 조금씩 바뀐다고는 하지만 결국 돌고 도는 만큼 금방 지겨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편리한 점은, 끼니때에는 가까운 기숙사에 위치한 Dining Hall에 가면 바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뷔페식이어서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먹을 수 있으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Vegetarian이 많은 미국이라 샐러드와 야채, 과일을 점심 저녁마다 먹을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 ii. 기숙사에 살 경우 무조건 Meal Plan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은 바꿀 수 없지만, Plan의 종류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맨 처음에는 기숙사 신청시에 기록한 내용으로 기본 신청이 되어있으나, 학기 초 특정 시점까지는 다른 플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관련 안내가 메일로 날아옵니다.) 그리고 모든 Meal Plan에는 Guest Pass 10개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Guest Pass는 Meal Plan이 없는 사람들에게 써줄 수 있는 일종의 쿠폰 같은 것인데, 본인에게도 사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 대중교통

- i. Minneapolis와 그 근방의 대중교통은 Metrotransit에서 운영하는데요, 이곳의 대중교통은 거의 대부분 Bus이며, Rail을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경우 Mall of America에서 공항을 지나 Minneapolis Downtown까지 운행하는 Light Rail이 있습니다. 단기유학생들에게는 차가 없으므로 학교 밖의 어떤 장소에 가거나 큰 마트로 장을 보러 갈 때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정보는 <http://metrotransit.org> 에서 얻으실 수 있으며, 학교 안을 지나가는 주요 버스로는 2번과 3번, 16번, 50번 버스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owntown 방향으로 가는 버스에는 3,16,50번 버스가

있고, 서쪽에 있는 큰 마트나 한인마트에 가실 경우에는 16번이나 50번 버스를 이용하시게 됩니다.

- ii. 앞서 잠시 언급했다시피, 현재 학교에서는 Minneapolis와 St.Paul을 연결하는 Light Rail의 공사 때문에 정상적인 대중교통 이용이 힘든 상황입니다. 당장 2011년 여름까지는 Washington Ave의 East Bank 부분이 완전히 막혀있을 예정이라 원래 Washington Ave를 이용하던 버스들의 노선이 전부 우회로로 바뀌어 있습니다. 공사 상황에 따라서 노선이 수시로 변경되므로 아마 단기유학 생활 하시는 내내 불편을 겪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ii. 학교 안에서는 Campus Shuttle 이라는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낮 시간 동안에는 꽤나 자주 오는 편이며, 학교 내부를 순환합니다. 주로 West Bank에서 East Bank, 혹은 그 반대의 경우나 아니면 St.Paul Campus로 갈 일이 있을 때 이용하게 됩니다.
- iv. U-Pass는 Metrotransit에서 운영하는 Minneapolis의 대중교통을 일정 기간동안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말하는데요, 2010년 기준으로 한 학기에 \$97 이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 후(<https://buspass.umn.edu/> , UofM 계정 필요) Coffman Union에 위치한 Information Desk에서 카드 수령 후 이용 가능합니다. 무제한 교통카드인 U-Pass 외에, 미리 일정금액을 충전한 후 탑승시 마다 돈이 빠져나가는 Go-To card도 이용이 가능한데요, 한 학기에 버스를 탈 일이 약 40번 미만이라고 생각되시면 Go-TO 카드를 이용하시는 것이 더 저렴합니다. U-Pass를 이용하실 경우의 장점은 학교 내에서 East Bank에서 West Bank로 이동할 때 Campus Shuttle를 기다릴 필요 없이 일반 버스 또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무제한이므로) 따라서 수업이 양쪽 Bank에 모두 있는 분의 경우에는 편리성을 위해 Upass 구입을 추천합니다.

3. 가을학기

- i. UofM의 수업들은 과목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전공과목의 경우에 일주일에 50분 수업 당 1학점으로 되어있었으며, 연습시간 또한 수업시간으로 취급하여 일주일에 50분짜리 강의 3번과 50분짜리 Discussion 1번이 있을 경우 4credit으로 되어있습니다. 실험과목의 경우에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즉, 연습시간도 수업으로 치는 것 이외에는 POSTECH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ii. 저는 가을학기에 5과목 18학점을 수강하였습니다. 천체물리학에 관심이 있어서 POSTECH에는 없는 천문학 과목을 일부 수강하였고, 동시에 관심이 있었던 디지털 과목과 전공필수로 인정받기 위한 양자물리 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 아래 나열된 학수번호와 과목 이름은 UofM의 것을 그대로 적었으며, 학점 또한 UofM의 것으로 적었으므로 실제로 추후에 학점인정을 받을 때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iii. 과목들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종합학교라서 정말 엄청난 수의 과목이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졸업을 위해 필요한 과목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기유학의 기회를 통해서 타전공의 Introduction 과목이나 1~2개의 관심 있는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iv. 수강과목
 1. AST 2001 Introduction to Astrophysics – 4credits
천체물리개론과목입니다. Introduction to Astrophysics 라는 책을 통해 천체물리학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배웠습니다. Robert Gehrz 교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다소 오래된 자료를 수업에 활용하셨지만, 꽤나 자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하시거나 장비를 통한 실험을 보여주심으로써 과목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돋우셨습니다. Grade는 5번의 Problem Set과 서술형과 짧은 에세이로 이루어진 3번의 오픈북 시험으로 이루어졌으며, 절대평가였습니다. 수업을 잘 들으며 칠판에 적히는 내용들을 필기해두고, Problem Set들을 스스로 풀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해야 합니다.
 2. AST 4001 Astrophysics I – 4credits
천체물리학I 과목입니다. 별의 구조와 생성에 대해서 주로 배웠으며, 내용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필기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교수님께서 내신 숙제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푸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번의 시험과 숙제 점수를 통해 Grade가 매겨졌습니다.
 3. EE 2301 Introduction to Digital System Design – 4credits
우리학교 전자과의 디지털 실험과 설계 과목과 같은 과목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Matrix와 Timing Diagram, 논리 회로 설계 등에 대해서 배우면서 동시에 빵판과 기본적인 회로 부품을 이용한 실습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3번의 시험이 점수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책 내용을 잘 읽어보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4. PHYS 4101 Quantum Mechanics – 4credits
물리학과와 전공필수인 양자물리2 를 대체하기 위해 들은 과목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Schrodinger Equation의 풀이부터 시작하여 Hydrogen Atom, Perturbation Theory까지 배웠습니다. 숙제점수와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가 성적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5. MUS 3430 Campus Orchestra – 2credits
Non-music major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UofM의 Orchestra class 입니다. 100명 이상 학생들로 구성된 Full Orchestra로써 지휘과 박사과정 대학생들의 지휘아래 1주일에 2번씩 1시간 30분동안 지정된 곡들을 전체연습 하는 형태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강의계획서를 보면 악기가 없어도 빌려서 할 수 있다고는 되어있으나, 대부분 개인악기를 사용하였으며 저 또한 이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한국에서 악기를 들고 왔었습니다. 출석체크와 2번의 공연 필수 참석 조건으로 성적이 매겨졌으므로 따로 과제에 대한 로드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개인 실력에 따른 개인연습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시험기간에도 휴강 없이 수업이 진행되므로 시간관리가 필요한 과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재미있었던 과목 중 한 과목 이었습니다.

4. 봄학기

- i. 봄학기에는 7과목 20학점을 수강하였습니다. 천체물리학 과목을 중심으로 타과 과목으로는 확률과 통계 과목을 수강하였고, 2개의 Campus Orchestra 수업을 들었으며, 동시에 연구참여 또한 참여하였습니다.
- ii. 봄학기 수강신청은 가을학기 말에 이루어지는데요, UofM에서는 높은 학년 일수록 더 일찍 수강신청이 가능해지는 엄격한 수강신청 우선권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나, 단기 유학은 Non-degree 학생으로 취급되어 그러한 우선권에서 최하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로 Senior부터 Freshmen까지 모두 수강신청을 시작 한 후에야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일부 인기 과목의 경우에는 수강신청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공과목을 주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늦게 수강신청을 하더라도 별 탈 없이 수강신청을 마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iii. 수강과목
 1. AST 4002 Astrophysics II – 4credits
Astrophysics I 과목에 이어서 천체물리학에 대해서 배운 과목입니다. 은하계 및 은하의 구조, 우주론, 블랙홀에 대해서 배웠으며, 역시 내용은 쉽지 않았습니다. Oral Exam 및 숙제, 그리고 학기말 발표와 페이퍼 작성을 통해 grade가 매겨졌습니다.
 2. AST 4990 Directed Studies – 2credits
AST 5201 과목을 가르치신 Terry Jones 교수님 밑에서 학부생 연구참여 형식으로 일한 과목입니다. Instrumentation에 대해 기본적인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가을학기가 끝날 무렵 직접 교수님을 찾아가서 연구참여를 하고 싶다고 말씀 드렸고, 봄학기 시작부터 일주일에 약 6~8시간 정도 연구실에서 시간을 보내며 교수님의 연구를 도와드렸습니다.
 3. AST 5201 Experimental Methods for Modern Astrophysics – 4credits
천체물리학에서의 관측 장비와 관측 방법 및 결과 분석법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배운 과목입니다. 대학원 과목이었으나 담당하시는 교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Permission Number를 입력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 없이 숙제와 실습결과, 그리고 학기말의 개인별 발표로서 성적이 매겨졌습니다.
 4. MUS 3430 Campus Orchestra – 2credits
가을학기 때 들었던 Campus Orchestra와 같은 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여러 번 수강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고, 저 또한 봄학기에도 계속해서 악기연주를 하기 위해 이 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
 5. MUS 3430 Campus Orchestra – 2credits
사실 Campus Orchestra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요, 이 과목은 full 편성의 Orchestra가 아닌, 현악기만으로 구성된 String Orchestra 과목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과목과 거의 동일하나, 차이점이라면 규모가 좀 더 작고, 수업시간이 일주일에 2번 각각 1시간씩으로써 30분 짧다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재미있었습니다.

니다.

6. PHYS 3022 Introduction to Cosmology – 3credits

과목 이름 그대로 우주론에 대해서 배운 과목이었습니다. 우주론에 쓰이는 기본적인 방정식으로부터 시작하여 Inflation, Reionization, Big Bang Nucleosynthesis, Dark matter까지의 기본적인 우주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3번의 시험과 숙제를 통해서 성적이 매겨졌으며, 개인적으로 매우 흥미로웠던 과목이었습니다.

7. STAT 3021 Introduction to Probability and Statistics – 3credits

우리학교의 확률과 통계 과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수강한 과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본적인 확률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하여 후반부에는 통계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 7번의 퀴즈와 기말고사를 통해 성적이 매겨졌습니다. 우리학교의 확률과 통계 과목과 동일한 교재를 통해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5. 방학 및 여행

- i. 미국 대학교의 겨울방학은 짧습니다. 12월 중순부터 약 한 달 동안 겨울방학이 있고 난 후 1월 중순에 봄학기가 시작됩니다. 한 학기 단기유학을 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비자 만료 시점에서부터 1달 이내에 미국을 벗어나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을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다음날부터 봄학기 시작하기 3일 전까지 거의 겨울방학 내내 미국 동부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에 대해서 가볍게 언급하자면, 12월 22일부터 1월 5일까지 15일동안 뉴욕에 있었고, 그 후로 1월 8일까지는 보스턴, 10일까지는 필라델피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싱턴에서 5일동안 있었습니다. Minneapolis->New York, 그리고 Washington DC->Minneapolis는 국내선 비행기를 이용하였으며, 도시간 이동은 3번 모두 Megabus를 이용하였습니다. 저는 여행의 메인 테마를 공연으로 잡고 주요 관광지들을 둘러봄과 동시에 여행기간 동안 17개의 오케스트라, 뮤지컬, 오페라, 발레공연을 보았습니다. 특히 뉴욕에서 봤던 14개의 공연들은 매우 수준이 높았고, 또한 인상 깊었으며, Student discount나 Rush ticket 등을 활용하여 생각보다 비싸지 않게 공연들을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게 높은 수준의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일부러 130달러를 주고 보았던 발레공연을 제외하고는 평균 30달러 정도로 공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테마가 공연이었지만, 다른 주제를 테마로 잡고 구경하셔도 즐거운 여행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ii. 여행을 가시고자 한다면, 우선 여행할 장소를 선택하신 후 숙소와 비행기를 최대한 일찍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숙소로 호스텔을 이용하실 예정이라면 <http://www.hiusa.org>를 추천합니다. 미국 전역에 체인 형태로 운영되는 대형 호스텔이라서 믿을만하고, Dormitory room의 경우에는 가격이 저렴한 편이고, 대부분 조리시설 및 가벼운 아침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편리합니다. 방 또한 많은 편이지만, 성탄절이나 새해에는 예약이 금방 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약하셔야 합니다. 이동수단의 경우, 비행기는 보통 비행기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예약하는 것이 더 저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의 경우에는 Megabus 나 Greyhound를 주로 이용하시게 될 텐데요, Megabus의 경우 일찍 예매하면 정말 싼 가격에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저의 경우 Boston->Philadelphia 와 Philadelphia->Washington DC 노선은 각각 단돈 1달러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 iii. 봄 방학 때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여행을 다녀오지 못하였고, 학기 말에 당일치기로 시카고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심야 Megabus를 이용하여 밤에 출발, 아침에 시카고에 도착한 후 하루 종일 여행을 하고 밤에 다시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일정이었는데요, 몸은 다소 피곤하였지만 하루 종일 열심히 돌아다닌 덕에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여행이었습니다. 좀 더 여유롭게 시카고를 감상하시려면 72시간 정도는 시카고에 머물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루즈를 타고 이루어지는 건축투어는 꼭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6. 기타 정보

A. 마켓, 생활용품 구입

- i. 식료품 및 생활용품 일체를 구할 수 있는 대형 마트는 버스를 타고 학교에서 15분 ~30분 정도 가야 갈 수 있는데요, Walmart나 Rainbow 등의 마트도 있지만 추천할 만한 마트는 Target 입니다. 학교 근처에는 Downtown에 1개, 그리고 University Ave를 따라서 가다보면 있는 Super Target 1개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Super Target이 Downtown Target 보다 더 크고 물건의 종류 또한 많다는 장점이 있지만, 거리상으로는 Downtown Target이 더 가깝습니다. 두 Target 모두 16번과 50번을 타고 가실 수 있으며(downtown target의 경우 3번도 가능합니다.), 처음 가실 때에는 구글맵이나 구글 스트리트뷰를 통해 어느 정도 위치와 감을 익히시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형마트가 아닌 작은 마트의 경우에는 학교 기숙사 지하에 위치한 C3 Market(Centennial, Middlebrook)을 이용하시거나, 학교 북쪽의 Dinky town에 있는 CVS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Target에서는 생활 용품에 대해서 학기시작 무렵에 Student 할인을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만약 off campus에 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주방용품 및 그릇 등이 필요하실 텐데요, 그런 물건들의 경우에는 Target에서 찾아보시기 이전에 Marshalls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Marshalls는 일종의 아웃렛 매장이므로 생활용품 이외에도 의류 등 기타 다양한 품목을 모두 파는 매장인데요, 구글 맵에서 검색해 보시면 Downtown Target에서 2스트릿 정도 떨어져 있는 Marshalls의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B. 한인마트

- i. Minneapolis지역에는 서너개의 한인마트가 있으나, 라이드 없이 버스로만 갈 수 있는 가까운 한인마트는 한 개뿐입니다. 구글 맵에서 'Kim's Oriental Market' 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곳인데요, Super Target으로 가는 방향의 16번 혹은 50번 버스를 타고 가다가 Snelling Ave에 내려서 북쪽으로 5분정도 걸어가시면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쌀이나 라면, 3분카레, 김치, 밀반찬, 조미료 등 필요한 한국 식료품들은 대부분 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실 때는 잊지 마시고 빈 백팩을 메고 가시기 바랍니다.

C. Meal Plan 관련

- i. 저의 경우에는 기숙사인 Centennial Hall에 살았지만, Meal plan중 최저갯수인 115 meals per semester + \$400 Flexdine 을 선택하여 아침을 제외한 끼니의 반 정도만 meal plan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반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아침은 먹지 않거나 마트에서 구입한 시리얼+우유로 해결하였고, meal plan이 아닌 끼니는 flexdine을 이용하여 사먹거나 외식, 혹은 방에서 밥이나 라면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방에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냉장고와 전기밥솥 덕분이었는데요, 저는 2학기동안 생활할 것을 고려하여 학기시작 전에 냉장고를 구입하였고(\$70정도) Target에서 파는 저렴한 전기밥솥(\$20정도)또한 구입하여 방에서 밥을 먹을 때 사용하였습니다. 전기밥솥은 보

온기능이 매우 열악한 관계로 끼니때마다 밥을 조금씩 해야 했지만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고, 전기밥솥은 기본적으로 물을 끓이는 물건이므로 그것을 이용해서 전기밥솥으로 라면이나 짜파게티 또한 끓여먹을 수 있었습니다. 반찬으로는 한인마트에서 구입한 밀반찬이나 참치, 김, 김치, 3분요리 등을 먹었는데요, 밀반찬의 경우 냉장고에 보관이 가능했으므로 여러 종류를 사놓고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400 의 Flexdine으로는 Coffman Union Building의 지하에 위치한 Market place에서 음식을 사먹거나 교내의 커피숍(Starbucks, Java City 등)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사용했습니다. \$400 의 Flexdine은 상당히 넉넉한 편이어서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저처럼 생활하실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D. 문화생활

- i. Minneapolis는 뉴욕이나 시카고 같은 문화 예술의 중심지까지는 아니지만, 찾아보면 어느정도 문화 생활을 즐길만한 요소가 있습니다. 가끔 유명 팝 가수가 공연을 하러 오기도 하고, Downtown에는 지속적으로 연극 및 뮤지컬을 하는 공연장이 있습니다. 물론 영화관도 있습니다.
- ii.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부분은 Minnesota Orchestra의 클래식 공연이었습니다. Minnesota Orchestra는 Chicago Symphony Orchestra나 New York Philharmonic, Boston Symphony Orchestra 수준의 Top Orchestra는 아니지만 Top에 근접할 정도의 주립 오케스트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Downtown에 있는 전용 Orchestra Hall 에서 공연이 이루어지며(2011-2012 시즌에는 Renovation 관계로 다른 장소 이용) 무엇보다 9월이후에는 Student Discount Package를 구입할 수 있어서 공연 한번에 10달러만 주고도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클래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꼭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 iii. 그 밖에 학교 내부에서 하는 공연도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음대에서 하는 공연 (<https://www.music.umn.edu/events/>)에는 좋은 공연이 많습니다. 소규모 공연의 경우에는 음대 학부와 대학원생들이 연주하는 Recital 공연이 매주 있기 때문에 원한다면 공연을 원없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매주 Coffman Union에서는 건물 내의 영화관에서 무료 영화 상영을 하거나 기타 다른 이벤트들을 개최하는데요, Coffman Union 곳곳의 Bulletin Board 에서 영화 제목이나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 쇼핑

- i. Light Rail의 종점에 가면 Mall of America라는 대형 쇼핑몰이 있고, 북쪽에는 Albertville Premium Outlet 이라는 명품 Outlet이 있습니다. 미네소타는 '의류'에 한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의류를 구입하기에는 괜찮은 곳입니다. 특히 학기 시작 무렵이나 공휴일 부근의 세일기간을 이용하시면 저렴하게 쇼핑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Albertville 에서는 값비싼 물품들을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니 귀국 선물 구입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급하는 브랜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F. Technology Fee

- i. 단기유학생들은 기본적으로 College of Science and Technology에 속하게 되면서 한학기에 무려\$200 나 하는 CSE Technology Fee를 지불하게 되는데요, 이 Fee를 낸 학생들에 한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30인치 모니터가 달려있는 컴퓨터 랩실 사용 권한이라던지 프린트 권한이 그것인데요, <http://cselabs.umn.edu/> 에서 CSE Account 를 개설한 후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CSE Lab classroom이나 Walter Library에 가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고, 또한 한학기에 약 700장 가량 인쇄할 수 있는 credit이 생기기 때문에 그 credit을 이용하여 필요한 문서들을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늦게 알게 되어서(따로 공지는 해주지 않더군요...) 가을학기는 날려먹고 봄학기부터 이 혜택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꼭 잊지 마시고 지불한 Fee에 알맞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7. 예산

- i. 저의 경우에는 총 약 3,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습니다.(여행비 별도) 가을학기외 봄학기 모두 기숙사비 \$2,580와 밀플랜 \$1,675를 포함하여 학기별로 \$11,300 를 UofM에 지불하였으며,(총 \$22,600) 비행기 표 값으로는 19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외의 9달 동안의 생활비나 쇼핑비, 문화생활비로써 약 700만원 정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저렴한 Off campus에서 사는 등 비용을 최대한 줄일 경우에는 3,100~3,300만원 정도까지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 800만원과 개인적으로 모았던 돈 700만원을 비롯한 외부 지원금으로 약 2,400만원 정도를 충당하여, 부모님께는 남은 1,100만원정도만 도움을 받아 비용을 충당하였습니다. 단기유학, 특히 1년 단기유학 비용은 결코 적지 않은 양이지만,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최대한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ii. 이공계 장학금과 관련하여 언급하자면, 단기유학을 가기 직전 학기까지도 성적에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University of Minnesota의 경우, 단기유학기간에는 POSTECH과 UofM 양쪽 모두에 등록금을 내야 하지만, 이공계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에는 POSTECH 쪽 등록금이 이공계장학금으로 처리되므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주-2011년도 국가장학금(이공계) 사업 안내 문서: "교환학생 파견기간은 재학으로 인정하며, 교환학생 파견 직전학기까지의 평균성적(계절학기 및 재수강 취득성적 포함)이 계속지원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속 국내 대학의 등록금 규모에 해당하는 장학금 지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기유학 프로그램에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프로그램 지원 시점에는 계속지원 성적기준을 만족하여 이공계 장학금을 수여 받고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문제는 프로그램 지원 이후 단기유학을 떠나기 전까지의 한 학기 동안의 성적입니다. 단기유학을 가기 직전 학기 성적에 의해 단기유학을 떠나는 시점에서 계속지원 성적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단기유학 비용에 추가적으로 POSTECH에도 학기당 28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니, 그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할 것입니다. 이공계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도 학기 별로 의료공제비와 학생회비는 납부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하고 싶은 말

A. 유학에 관하여

- i. 제가 개인적으로 후기에 꼭 담고 싶었던 이야기 중 하나는 바로 유학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학부 이후의 진로로써 유학을 생각 중이신 분들이 계신다면, 가능한 빨리 준비를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봄학기가 시작될 때쯤에서야 유학으로 진로를 잡고 유학 준비를 시작하였으나, 항상 조금 더 일찍 준비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조금 남았었습니다.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 중 단기유학을 한학기만 오시는 경우라면, 일찍부터 연구참여 자리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착 전에 미리 교수님과 컨택이 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닐 경우에는 도착 하자마자 개강 전까지의 짧은 시간이라도 연구참여 자리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연구참여경력은 CV에 넣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잘 될 경우에는 연구참여 했던 교수님께 추천서를 약속 받음으로써 대학원 지원시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포스텍에서의 생활에 비해 단기유학 중 생기는 여유시간을 유학 준비에 더 투자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GRE나 TOEFL 준비가 그 중 하나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이학계열 학생들에게는 필수가 되는 Subject GRE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보다는 미국 체류 중에 치루는 것이 점수의 신뢰성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을학기가 끝날 무렵 교수님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봄학기에 연구참여 할 랩을 확정하였고, 2월 말부터 Subject GRE를 준비하여 4월에 시험을 쳤습니다. 또한 봄학기 내내 General GRE를 조금씩 준비하다가 봄학기가 끝난 후에는 바로 귀국하지 않고 2주정도 더 머무르면서 GRE 공부를 마무리한 후 GRE 시험을 치고 귀국을 하였습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 준비를 하면 유학에 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B. 단기유학은 미리미리 준비

- i. 단기유학을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졸업이수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단기유학을 갈 경우, 특히 1년을 가는 경우라면 미리미리 졸업에 지장이 없도록 1학년때부터 교과목수강계획을 세워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전공필수와 교양필수, 그리고 영어인증제 부분에 있어서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전공필수의 경우에는 외국 대학에서 수강한 과목을 전필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타격이 크므로 선배들을 통해 확실히 알아보거나 포스텍에서 들어두시는 것이 좋으며, 교양필수과목의 경우에는 거의 포스텍에서 수강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려우므로(체육 제외) 미리미리 수강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영어인증제 또한 단기유학 전에 어느정도 이수해놓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단기유학에 가서 전공선택이나 자유선택에 속하는 과목만 수강하는 것인데요, 웬만한 전공과목 혹은 타과 전공과목은 거의 대부분 전선이나 자선에 속할 확률이 높으므로 안정적으로 졸업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단기유학을 다녀온 이후의 학점인증절차에는 예상 외의 복병이 숨어있을 수도 있으므로 미리미리 안전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실제로 학점인정 관련 문제가 생겨서 졸업이 미뤄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마치

막으로 1년 단기유학의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수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학교의 학칙 제51조에 따르면 국내외타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4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이미 한예종에서도 2학점을 이수한 적이 있기에, 저 조건을 적용할 경우 단기유학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최대 28학점이었습니다. 28학점이면 단순히 계산해서 한학기에 겨우 14학점씩 인정받는 셈이니, 경우에 따라서는 졸업 계획에 지장을 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유학 참가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셔서 졸업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후기를 마치며...

미국에서의, University of Minnesota에서의 9달 간의 생활은 저로 하여금 유학 전의 2년 반 가량의 포항생활을 되돌아보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가을학기에는 포항에서의 바쁜 생활을 벗어나 삶에 여유를 가지며 홀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겨울 방학 동안 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봄학기 내내 진로 준비를 위해 정신 없는 생활을 했던 것 같네요.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 속에서 미국 사람들의 삶과 문화에 대해서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환경에 있어서는 좀처럼 겪기 힘든 혹독한 겨울 또한 경험할 수 있었죠. 단기유학을 하는 동안 학교에 있었다라면 결코 경험해 볼 수 없었을 일들을 떠올려보면서, 다시 한 번 단기유학 가기를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보람찬 단기유학을 위해서는, 이렇게 후기를 통해 정보를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노하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본인이 스스로 인터넷 사이트를 뒤적이고, 직접 발로 뛰면서 정보를 찾아나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또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후기를 마치려고 보니 길고 긴 후기를 쓰던 도중, 중간중간 '이렇게 남긴다고 해서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 글을 읽는 입장이라면 너무 길어서 한번이라도 읽기는 할까' '빠뜨린 내용이 있지는 않을까' '잘못된 정보를 남겨서 해를 끼치면 안 될 텐데' 하고 몇 번이나 생각했던 것들이 머리 속에 맴도네요. 이왕 쓸 후기라면 제대로 한 번 써보자는 마음에서 시작했었는데, 다 쓴 후기를 보니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많지만 이쯤에서 줄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기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University of Minnesota에 대한 후기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 대한 후기들도 한 번쯤을 읽어보시기를 권하며,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모두 단기유학 잘 준비하셔서 한 학기, 혹은 두 학기 동안 좋은 경험 쌓고 돌아오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